



‘...’
(할 말을 잃었다)

한국야구 도쿄 참사 호주에 7-8 역전패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 위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한국 야구대표팀이 호주전 '충격의 패배'로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 위기를 맞았다.

이강철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9일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 B조 1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3개의 피

홈런과 황당한 태그아웃을 남기며 7-8 재연전패를 당했다.

'3승 1패' 전략으로 8강을 노렸던 한국은 초호화 멤버를 앞세운 일본(10일 오후 7시), 체코(12일 오후 12시), 중국(13일 오후 7시)과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해야 다음 무대로 향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몰렸다.

한국이 조 2위 안에 들지 못하면 2013년 제3회 대회와 2017년 제4회 대회 그리고 6년 만에 재개된 이번 대회까지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의 운명을 맞게 된다.

사이드암 고영표를 선발로 내세운 한국은 4회 먼저 실점을 기록했다.

고영표가 사사구 2개를 더해 무사 만루 위기에 몰렸다.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아웃카운트와 점수를 바꾼 고영표는 이후 로비 퍼킨스를 상대로 병살타를 유도하면서 대량 실점 위기에서 벗어났다.

5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고영표는 팀 케넬리에게 중월 솔로포를 허용하면서 0-2가 됐다. 하지만 한국에도 '한방'이 있었다.

5회말 김현수의 볼넷에 이어 박건우의 좌전안타가 나오면서 마침내 한국의 방망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사 1-2루에서 최정 이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양의지가 승부를 뒤집는 역전 스리런을 날린 뒤 그라운드를 돌았다.

양의지는 1볼 스트라이크에서 대니얼 맥그래스의 3구째 129km짜리 체인지업을 도쿄돔 좌측 펜스 밖으로 보냈다.

한국은 분위기를 살려 6회말 이정후의 좌전안타와 박병호의 2루타로 4-2를 만들었다.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7회초 고영표-원태인-정철원-소형준에 이어 1사 2-3루에서 김원중이 마운드에 올랐다.

김원중이 삼진으로 2사를 만들었지만 로비 글렌디닝에게 역전 스리런을 허용했다. 8회초에는 양현종이 난타를 당했다. 1사에서 출격한 양현종이 내야 안타, 2루타에 이어 홈런까지 맞으면서 점수는 4-8까지 벌어졌다.

한국은 8회말 호주가 사사구 6개로 흔들린 사이 7-8까지 추격했지만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다.

9회말 에드먼이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했지만 김하성과 이정후가 범타로 물러났다. 2사에서 도루를 시도한 에드먼이 2루에서 아웃되면서 한국은 1점 차 패배를 기록했다.

1점의 승부였던 만큼 7회말 나온 강백호의 아웃은 두고 두고 아쉬운 장면이 됐다.

7회말 1사에서 강백호가 대타로 나와 한화에서 활약한 워릭 스폴드를 상대로 좌중간 2루타를 만들었다. 벤치의 환호성은 이내 아쉬운 탄식으로 바뀌었다. 2루에서 세리머니를 하던 강백호의 발이 베이스에서 떨어졌고, 그 틈을 노려 상대가 태그를 하면서 아웃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강백호의 아웃 뒤 후속타자 양의지의 좌전안타가 이어졌던 만큼 더 아쉬운 아웃이 됐다.

호주전 충격의 패배를 기록한 한국은 부담 많은 상황에서 B조 최강 일본을 만난다.

노련한 김광현이 한국 선발로 나서 '빅리그'에서 85승을 기록한 다투시유를 상대로 '운명의 한일전'을 펼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9일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본선 1라운드 한국과 호주의 경기. 7회말 1사 상황에서 한국 강백호가 2루타를 날린 뒤 태그되고 있다. 비디오판독 결과 발이 2루에서 떨어져 아웃됐다. /연합뉴스

강팀 쿠바와 대만도 1차전에서 나란히 '고배'

강팀 쿠바와 대만이 2023 WBC A조 본선 1라운드 1차전에서 나란히 고배를 마셨다.

네덜란드는 8일 대만 타이중 인터콘티넨털 구장에서 막을 올린 2023 WBC A조 본선 1라운드 1차전에서 과거 '아마추어 최강'으로 군림한 쿠바를 4-2로 눌렀다.

디디 그레고리우스라는 영어식 이름으로 한국 팬에게도 잘 알려진 디디 흐레호리우스, 조시 팔라시오스, 하드빅 트롭프 등 타점 4개를 합작한 네덜란드 선수들은 전현직 메이저리거다.

이어서 벌어진 A조 두 번째 경기에서는 파나마가 홈팀 대만을 12-5로 따돌리고 이번이 가까운 대승을 챙겼다.

예선을 거쳐 WBC 본선 무대에 14년 만에 복귀한 파나마는 6번째 도전 만에 이 대회에서 역사적인 첫 승리를 수확했다.

이 경기의 시구는 파나마 출신으로 MLB에서 통산 최다 세이브(652개)를 남긴 최고의 마무리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가 맡아 파나마의 승리는 더욱 빛났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 2023 KBO 시범경기 입장권 판매

KIA 타이거즈가 주말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2023 KBO 시범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

입장권 판매가 이뤄지는 경기는 토요일인 진행되는 18·19일 두산전과 25·26일 NC전으로 구단 공식 어플리케이션과 티켓링크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예매는 경기 5일 전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며, 현장 판매는 경기 개시 1시간 30분 전부터 1-3매표소와 무인발권기에서 이뤄진다.

입장권 가격은 성인 5000원, 중고등학생 3000원

으로 타이거즈가족석을 제외한 3층 전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챔피언석과 중앙데이블석은 성인, 청소년 구분 없이 5000원에 판매된다.

초등학생, 경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매표소에서 무료 입장권을 수령하면 된다.

한편 평일에 진행되는 경기는 챔피언석, 중앙데이블석, 3루 일반석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모든 좌석은 자유석으로 운영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의지 3점 홈런 '국내용' 딱지 뚫지만...

자타공인 KBO 현역 최고 포수 국제대회 성적부진 마음 고생 8년만에 홈런...역전패에 눈물

대표팀 안방마님 양의지(두산 베어스)는 자타공인 KBO리그 현역 최고 포수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작전 수행 능력으로 '곰의 탈을 쓴 여우'라는 별명을 얻었고, 타석에서는 9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이어가는 파괴력 넘치는 선수다.

그러나 태극마크만 달면 좀처럼 활약하지 못했던 양의지가 드디어 타석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양의지는 9일 일본 야구의 성지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조별리그 호주전에서 0-2로 끌려가던 5회 2사 후 타석에 등장했다.

김현수의 볼넷과 박건우의 첫 침 안타로 1사 1, 2루 기회를 잡았지만, 최정이 삼진으로 맥없이 물러난 가운데 타순이 돌아온 양의지는 이강철호의 구세주로 거듭났다.

초구와 2구 체인지업을 그대로 지켜봐 볼카운트 1볼 스트라이크가 된 상황에서 대니얼 맥그

래스의 3구째 체인지업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자 그대로 방망이를 돌렸다.

타구는 그대로 왼쪽 담을 훌쩍 넘어 도쿄돔 외야 왼쪽 스탠드에 안착했고, 역전 3점 홈런을 직감한 양의지는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했다.

평소 감정을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양의지는 1루로 뛰어가며 점프까지 선보여 자신의 기쁜 마음을 마음껏 드러냈다.

양의지의 국제대회 홈런은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결선 토너먼트 쿠바전 이후 8년 만이다.

그간 양의지는 국제대회만 나가면 성적이 부진해 마음고생이 심했다.

처음 주전으로 나선 2015 프리미어12는 타율 0.231에 1홈런 2타점을 남겼고, 2017 WBC는 타율 0.222, 1타점에 그쳤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대표팀 4번 타자 중책을 맡았지만, 타율 0.136, 1타점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번 대회 전까지 양의지의 국제대회 통산 성적은 31경기 타율 0.169(83타수 13안타), 1홈런, 6타점이었다.

결국 한국은 7-8로 호주에 패하면서, 모처럼 대표팀에서 방망이 솜씨를 뽐낸 양의지의 활약도 빛이 바랬다. /연합뉴스



양의지